



영적 지도

이낙희 신부 편집자

차례

I. 영적 지도란 무엇인가	4
바이올린.....	4
길이 필요하다.....	11
적합한 사람	12
꼭두각시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
바보처럼 아니다	26
"계속 가라..."	28
첫째는 '죽은 이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진실성.	35
늑대와 양들	38
단순성.....	41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45
향구성. 내적 삶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51
III. 영적 지도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55
기도 생활.....	56
신심 규범.....	58

신앙.....	60
순결.....	61
소명.....	63
십자가의 만남.....	64
사랑.....	66
기쁨과 걱정.....	68
교회에 대한 사랑.....	69
성덕에 대한 열망과 미지근함.....	71
공부와 일.....	73
IV. 영적 지도와 잦은 고해성사.....	74

이 책은 1978 년에 출간된 "영적 지도"라는 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0 년, 저자 프란시스코 페르난데스 카르바할 신부님은 책을 확장하여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셨습니다.

I. 영적 지도란 무엇인가

바이올린

가난한 한 남자가 낡은 바이올린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연주를 마치고 마지막에 낡은 베레모를 군중 사이로 돌리며 모금이 가득 차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연주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그다지 조화롭지 못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바이올린도, 연주자도 그 이상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명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거장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군중 속으로 다가가서 마침내 그 악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눈에 악기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조율하고, 준비한 후...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바이올린 소유주는 당황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바이올린이야! 내 바이올린이라고! 내 바이올린이야!" 그는 그 낡은

현들이 그렇게 많은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정말 훌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큰 성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낡은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바이올린이 좋을 수도 있지만 조율이 안 되어 있거나 심지어 현 하나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진지한 무언가를 연주하려면, 나오는 것은... 조율되지 않은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가난한 베레모를 돌려야 합니다. 박수, 인정, 찬사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관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결국 옛 속담이 현실이 됩니다: "뽕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자는 항상 굶주린다" -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위대한 작곡가 이신 성령께서 조율하시고, 정돈하시고, 빠진 현을 채워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연주하시도록 내맡길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들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삶이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자신이 끊임없이 찾는 진리와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7).

오직 주님만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많은 경우에 조율을 통하여 의미가 결여된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놀라운 작품을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며 진리와 권위, 기쁨과 효율성,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신다"고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을 아시고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이며 필요한 지식과 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기심을 치유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딘가 아프다고 느끼면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시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또한 치료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더라도, 오랫동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아프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앓는 모든 병의 치료제입니다. "나에게 오너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이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길을 잃었을지라도 그분께 맡긴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은 그분에게 유일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피레네 산맥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우리 안으로 내려오는 거대한 양 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부러진 양 한 마리가 나머지 다른 양들에게서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목자에게 그것을 알렸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손실의 일부일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의 무관심에 나는 다소 낙담했습니다. 그가 복음서에 나오는 착한 목자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한 마리의 양이 다쳤어도, 매우 뒤쳐져 있어도, 주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으면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루카 15,4-6).

이사야 예언자는 두 가지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인간을 향한 메시아의 온유함과 다정다감, 자비를 묘사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사 42,3).

상한 갈대나 연기가 나는 심지는 인간의 온갖 비참함과 질병, 고난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미 부러진 갈대를 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갈대위로 몸을 굽혀

최대한 조심스럽게 바로 세우고 힘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섬세한 물건을 수리할 능력이 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나 훌륭한 외과의사에 대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매우 훌륭한 주님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때때로 환자의 질병에 대해 "치료법이 없다"고 말하며, 그 환자의 치유를 불가능한 것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잃거나 넘어지고 다친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영혼에 직접 개입하시거나, 때로는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루카 10,16; 요한 20,23; 마태 28,20).

하느님은 또한 부모, 친구, 지인들을 통해 우리 영혼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는 길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에게 영혼을 열어 보입니다. 그는 스승이고 의사이며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는 친구로서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나타낼 수 있는 장애물들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내적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도록 돕고, 영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을 깨우쳐 줍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지근함을 깨트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소명을 인식하도록 빛을 주거나 재확인시켜 줍니다.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성덕을 갈망하고, 영적인 평범함과 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투쟁으로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들(적어도 "욕구를 가지려는 욕구")은 더 나아지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정 속에서 성장하려는, 다른 이들을 돌보려는 영적 지도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초대 교회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장했습니다.

길이 필요하다

내적인 삶, 예컨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매일, 매주 같은 결심을 여러 번 다시 시작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명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행자 -그리고 각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입니다-는 여행의 목적지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길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불명확한 방향 즉, 지나치게 일반적인 방향은 충분하지 않고, 명확한 길만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길이 없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많은 불안과 고뇌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은 여러가지 가능성과 함께 매우 다양한 미래에 눈이 부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종종 우유부단해지고 앞으로의 행진을 구체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주 쓸모없는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무언가 불분명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성장한 이후의 삶에서도 때때로 이루지 못한 환상의 기억에 복종하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메마른 영혼과 더불어 우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새로운 내적인 풍경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험곡의 풍경, 항상 같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 성급함, 나쁜 기질, 의심, 불 관용, 게으름에 묶여 살 수 있고, 첫번째 장애물에서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비겁함에 얽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무도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스스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객관성의 결여, 소모적인 열정, 게으름 등이 길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명확성이 없을 때 영적인 정체, 낙담, 미지근함 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얼마나 큰지! "좋은 조타수가 있는 배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있는 영혼도 이전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쉽게 영적인 성장을 달성합니다."(성 요한 클리마코, "천국의 사다리").

적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항상 조언을 구하라"(집회 6,6).

"성스러운 삶을 지향하면서 시작하는 일에서 확실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데 모든 노력과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영혼들이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성 바실리오).

중요한 일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신뢰는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등의 대화를 잘 하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의 조건으로는 서로에게 어느정도 친밀감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친밀감이 존재하지 않으면, 먼저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안내를 받으려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는 내용의 뿌리까지 파고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과약하는" 것이고 깊이 있는 대화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연스럽고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오로에게 아나니아는 시력을 회복시켜 줄 사람일 것입니다. 대천사 라파엘은 긴

여행에서 토비아를 인도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자신에게 전해진 신비를 알리기 위해 천사가 메시지에서 언급한 사촌 엘리사벳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동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이 경우에는 배필이신 성 요셉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는 초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속적인 문제의 조언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걱정거리를 털어놓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해심이 많은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그러나 영혼과 관련된 더 높은 단계의 대화는 하느님께서 누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특별한 영적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동기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잘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쁨은 쓴맛으로 변하고, 쓴맛은 위로 받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채 끝납니다. 이러한 경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어 말한 사람이 불안하고 내적인 불편함을 경험합니다."차라리 침묵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사람에게만 영혼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아플 때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즉 의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무 의사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갑니다. 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신발을 고치려면 구두 수선공에게 갑니다.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으면 포르투갈이 아니라 스페인 지도를 참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학, 법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했거나 바르셀로나가 어디에 있는지 어렵듯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분께 도착하려는 갈망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영혼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혼들을 하느님께 이끌기 위해서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역시 같은 길을 걸으며 스스로 그 어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지도자 역시 스스로 내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신심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심과 더불어 또한 지식과 모범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전달하시는 스승과 매우 친밀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잘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소화하여 양식을 영혼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분 곁에서 "언어의 은사"로 영혼들의 양식인 진리의 보물을 전달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죄로 인하여 빛을 잃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거칠고 귀찮은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멍에는 부드럽고 다른 이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내자로서 선한 목자의 조건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성덕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르쳐줄 영적 지도자를 찾는 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은총으로 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초자연적인 건물을 짓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을 우리 가까이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했는지 알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가 이해심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사건에서 주님을 찾도록 돕고,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아직 없을 경우에도 청하면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드디어 찾았다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사람을 찾았다는 좋은 신호는 "그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 즉,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산에 올라가서 등지에 놓인 독수리 알을 가져와 암탉이 품고 있던 알들 사이에 놓았다고 합니다. 다른 병아리들이 태어날 때 독수리 병아리도 태어났습니다. 이 독수리 병아리는 동료들의 습관을 배웠습니다. 마당을 돌아다니며 벌레를 먹고 때때로 높은 헛대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며 닭들처럼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땅에서 매우 높이 날고 있는 한 마리 새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게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암탉이 말했습니다: "저건 독수리야, 저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위엄 있게 날을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쳐다보지 마, 우리의 삶은 그와 같지 않고 여기 마당에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그 작은 독수리가

자신의 조건을 끝내 알아채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마당의 닭처럼 살았다고 설명하며 끝냅니다.

“길”이라는 책에 조언이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안목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폭을 보편적인 ‘가톨릭’의 경지까지 넓히십시오.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데 닭장의 암탉처럼 푸드덕거리선 안 됩니다”(길 7).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매우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C.S. 루이스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집을 재건축하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수구, 지붕의 누수 등 가장 긴급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분은 매우 아픈, 아무런 의미조차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벽을 허물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른 집을 짓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새로운 날개를 추가하고, 저기에 새로운 층과 탑을

세우고, 정원을 조성하십니다... 여러분은 큰 야망이 없는 작은 별장으로 개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 와서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위대한 계획으로 향할 것입니다: 성공, 실패, 질병...

따라서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 영적 조언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평범함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각 개인에게 매우 큰 무언가를 기대하십니다. 모든 남녀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덕의 삶으로, 선택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 하셨습니다. 어디서나 우리 영혼과 마음의 욕구는 항상 무한으로, 영원으로 향하지만,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안에 궁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오두막이 아니라!

영적 지도의 두 가지 지지대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꼭두각시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의 줄이 당겨지면 우리는 그저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개인은 자율성과 자신의 결단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는 자신의 판단이 배제된 피조물을 만드는 데 전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이의 조언을 물질적인 실행에만 국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 지도를 통하여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은 성숙함, 확신, 견고함, 충분한 교리지식, 영적 섬세함, 교육에 대한 의지 등을 전제합니다" (성호세마리아, “대화”, 93).

영적 지도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의 상황에서 판단력과 적용능력, 그리고 유연성과 자발성,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대응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마비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즉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갈망에서 오는 지혜와 유연성으로 맞서야 합니다.

영적 지도는 어떤 결정에 대한 두려움, 내적인 삶, 사도직, 연구, 일의 수행방법, 가족의 성화 등에서 지도자가 주도권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책임감과 헌신적인 태도로 덕을 쌓고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지향하려는 성인의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진리와 선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유는 우리의 지복이신 하느님을 향할 때 완성에 이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731). 오직 자유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명령이 아닌 조언으로 지시하고 그들에게서 자발성이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고 그들의 주도권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행자를 유연하게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도로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장소에 도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그 표지판이 목적지로 용이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데 스스로 헌신하고 전념할 것입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지도를 구하고 자신의 주도권으로 도움과 제안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지시와 조언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큰 확신과 효율성으로 투쟁합니다.

조종사들은 - 훌륭한 조종사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 모든 공항의 관제탑에서 받는 정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들의 경험, 비행 시간, 정신력, 강인함, 비행경로에 대한 지식 등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더욱이 관제탑은 착륙 활주로의 상태, 바람의 방향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상센터, 위성, 비행 중인 비행기 등에서 받은 유익한 정보 때문에, 다른 이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착륙할 때 이미 겪은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종사도 관제탑에서 무선으로 받는 정보 때문에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과 승객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관제탑이 정확하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비행기 -전문가와 아마추어- 가 관제탑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엄격한 의무사항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제탑의 사용 때문에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관제탑의 정보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것입니다.

영적 지도와 공항의 관제탑 사이에는 큰 유사성이 있습니다. 둘 다 방향과 고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 다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의 착륙이나

이룩시에 조종사에게 완전한 자유가 남겨져 있듯이, 영적지도를 받는 이케도 이와 동일한 자유가 남겨져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적 지도를 맡기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성덕을 향하려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걷는 사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사람, 자신의 성덕에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똑바로 걷는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혼자서 서야 한다면, 지지대나 다른 어떤 도움 없이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고해 신부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 영적 지도자는 안내자이지 무력한 이들의 유모차나 무기력한 이들의 지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동방박사들의 별에 비유했습니다. 별은 길을 가리키지만 그 길을 걷는데 필요한 노력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의 행동과도 비교되는데, 그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가리키지만, 결국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다른 예를 들자면 등대와 항구의 방향을 찾는 배입니다: 등대는 빛으로 항구를

가리키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항해자들은 힘차게 노를 젓고,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돛을 펼치며, 키를 확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는 모든 상황에서 강요되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주도권, 노력, 개인적인 책임 등을 받는 이가 스스로 요구하고 촉진합니다.

영적 지도중에 받는 지시나 조언에서,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뜻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표현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은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최고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 모든 것에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는 "스스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방향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형성된 사람은 받는 조언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거기에는 은총의 특별한 통로가 있고, 빠르게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많은 "단서"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에서 추구하는 큰 선은 점점 더 올바른 의지를 갖기 위해 그 의지를 교육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결과로서 진정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의지를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 나태함,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편안함, 또는 그 순간에 더 유용하거나 생산적으로 보이는 것 등을 배제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점점 더 섬세하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점점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저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행동하듯이, 하느님 뜻을 알고 스스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 바오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행의 구실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다만 그 자유를 욕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갈라 5,13). 성 베드로도 비슷한 말로 되풀이했습니다: "자유인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하십시오"(1 베드 2,16).

바보처럼 아니다

영적 지도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삶의 끝에서 방향과 의미를 잃고 광야를 방황한 후의 유대인들처럼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십 년 동안 우리는 광야를 떠돌아다녔다"(신명 2,1).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았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과 공부가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우정이나 가족,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가 진정으로 중요한 성덕과 구원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 걸음도 돕지 못했습니다. 투쟁할 가치가 있는 우리의 초자연적인 목표의 명확한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레바논에서 납치되었던 한 언론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2년 이상의 오랜 시간동안 서 있을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모두 그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감금되기 전에 그는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이후 놀랍게도 그는 하느님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시간 덕분에 더이상 바보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예컨대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더이상 하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덕으로 곧장 가는 대신 사소한 것이나 피상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최종 시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핵심 질문들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지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낙담과 좌절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진하라!", "너는 할 수 있어!", "멈춰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애물이 클수록 주님의 도움도 크다!"고 말해주는 친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희망을 되찾도록 도와줄 말들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준다. 그러나 홀로 있다가 넘어지는 이는 불쌍하다!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코헬 4,10).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너무 가파른 길입니다.

"계속 가라..."

어느 미국인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하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아버지의 세개의 단어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전차 안에서 차장이 울리는 두개의 경적소리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을 돕고 격려하기 위한 세개의 단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스턴의 전차 차고에서 일하는 대장장이였습니다. 그는 당시 17 세였습니다. 분기 시험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시험 결과에 실망한 교장선생님은 서둘러 아버지와 면담시간을 잡았습니다. 약속시간을 늦게 잡아야 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켜져 있을 때 아버지는

출근하셨고 집에 돌아오시기 전에 다시 켜졌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10 시간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 운명적인 밤을 매우 잘 기억합니다. 53 년이 지난 지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밤 8 시에 우리는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최악을 예상했고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아주 다른 길로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지적인 삶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적고, 사제 생활에 도달하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험에 실패한 저를 변호하려고 하셨지만 교장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 요셉도 목수였습니다. 하느님은 아들을 위하여 다른 일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별했습니다. 더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춥고, 어둡고, 습한 밤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억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집에 갔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마침내

여느 소년들처럼 저는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학위를 가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도와드릴 게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짧은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가거라, 아들이야." 그리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70 세가 되어서 오늘 한 서명은, 사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17 세때 공부할 가치가 없다고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 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처드 쿠싱 추기경, 보스턴 대교구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 가거라..."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혼자 있는 사람은 불쌍하다...!
반대로 누군가의 동행을 받는 것, 우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과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가!

더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그 몇
마디 말로 우리는 내적으로 재구성되고 힘을 받아 계속
전진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하느님께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라고 그 길을 잘 아는 누군가에게 물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장님이 인도자 없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 안내자 없이는 아무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지 않은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 남의 흠은 잘 보는 눈이 자신의 흠을 보는 것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투쟁할 수 없고 투쟁 없이는 성덕에 이를 수 없습니다.
- 교만, 오만, 게으름, 탐욕 및 다른 열정들은 사물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진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닫혀 있는 방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공기가 나빠진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나쁜 공기를 쉽게 감지합니다.
- “돌풍과 폭풍을 뚫고 내적생활의 암초 사이 사이로 영혼을 인도하기엔 자기 자신의 마음은 사악한 충고자이고 형편없는 선장이다” (길 59).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배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빛과 지혜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의 배를 암초로 향하게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는 상처를, 아마도 심각한 상처를 입을 것이고 그 상처들을 치료할 숙련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자주 상처의 진행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치료만 하는 사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없이는 어느 누구도 내적 삶에서 스스로를 인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성의 결여, 가장 좋아하는 것이나 가장 쉬운 것에 이끌리는 경향 등은 우리의 길을 자주 흐리게 만듭니다. 그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따르기 어렵습니다.

성인들도 내적 삶에서 조언해 줄 지도자를 요청했고 은총과 빛의 통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 십자가의 요한이 지적하듯이, "지팡이와 안내자 없이 혼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판에 혼자 있는 주인 없는 나무와 같으며, 그 나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길 가는 이들이 그것을 따 가버릴 것이고 결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좋은 돌봄으로 경작되고 지켜지는 나무는 기대되는 시간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인은 결론짓습니다: "스승 없이 혼자 있는 영혼"은 "혼자 있는 타오르는 숲과 같습니다. 숲은 타오르기보다 식어갈 것입니다"(성 십자가의 요한, "빛과 사랑의 말씀").

우리는 조언과 도움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 직관, 개인적 인상, 신문 기사 등에 쉽게 휘둘릴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수단 즉,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우리 손이 닿는 곳에 두신 수단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특별한 계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간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 빈센트 페레르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는데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필요한 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필요한 것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코 은총을 주지 않으십니다... 지도자를 두고 그 지도자에게 모든

면에서 주저 없이 순종하는 사람은, 매우 예리한 지성과 지혜로운 영적 서적들을 소유하면서, 혼자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관하여", II 부, 1 장).

우리는 영적인 동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궁핍이 너무 커서, 하느님께서서는 약한 이들을 지탱할 수 있는 강한 친구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녀 데레사, "생애", 15, 5).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특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데 매우 관심있는 누군가(악마)가 놓는 덫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R. 가리구-라그랑주, "내적 생활의 세 시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악마는 우리가 큰 도움을 받지 못하게 가능한 모든 장애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II. 효과적인 영적 지도를 위하여.

첫째는 '죽은 이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진실성.

시골 별장의 연못을 주인이 수영장으로도 사용했는데, 그 안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물의 수면에 몇 가지 얼룩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얼룩의 원인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것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너무나 불쾌하고 터무니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전문가를 불러 얼룩을 제거하게 했는데, 마치 문제가 표면에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문가는 적절한 세제를 찾아냈고 얼마 후 그 얼룩이 당분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 얼룩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를 다시 불러 새로운 세제로 그 보기 싫은 얼룩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마침내 어느 날 전문가는 집 주인들에게 다소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치료법은 단 하나입니다.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들어가 죽은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얼룩의 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죽어 있는 것을 표면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영적 지도의 명확한 빛 속에서 표면의 얼룩을 일으키는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공부에 대한 의지 부족, 일에 대한 무기력함, 슬픔, 나쁜 성격, 그로 인한 절제되지 않은 반응 등은 더 깊은 현실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는 하느님 앞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관능일 수도 있고, 가면을 쓴 잔인한 이기심일 수도 있으며, 미온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라는 덕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 물줄기를 따라 흘러야지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 위대한 인간적,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모든 영혼에는 '배수구'가 필요하다고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효과적인 영적 지도를 원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진실성이라는 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며, 인간적으로 가장 나쁜 위치에 처했던 우리의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영적지도의 시작과 연속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영적 지도의 좋은 열매는 처음부터 실제 있었던 일을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말할 때 맺어집니다. 반면 부수적이고 장식적인 것, 이미지에만 머문다면 영적지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병에 걸린 암환자는 의사에게 전혀 관련 없는 사소한 불편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정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의사는 먼저 아픈 곳과 불편함의 근원을 찾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받기 위하여 합당한 의사를 발견하고 가장 어려운 것부터 치료받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결심: 매우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반쪽짜리 진실 또는 위장이나 과장, 막연함이나 불명확함이 없이 완전한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실성; 필요할

때는 섬세하게 세부 사항을 속이지 않고 혼란과 복잡한 것을 피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결함, 비참함,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짓된 정당화나 상투적인 언어로 가리지 말고 그 아픈 이름을 불러내야 합니다.

늑대와 양들

늑대가 양을 공격할 때, 양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리로 덤벼들지 않고, 강한 송곳니로 희생자의 목을 물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쉬운 먹이감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악마의 전술 —'병어리 악마'— 은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의 목을 조여 아무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성의 영역에서 양이 늑대를 이깁니다.

진실성은 많은 고통과 개인적 문제에 대한 위대한 치료방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고, 손상된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해 두신 그 사람(지도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것 너머를 볼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는 말만으로 이미 승리했거나 승리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진실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진실성은 명확함에서 시작합니다. 영적 지도자와 대화에서 우리는 사소하고 장황한 세부 사항, 막연하고 평범한 의명의 일반화 등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대화로 일어난 일을 단순하게 말하고, 영혼의 진정한 상태 및 작은 승리와 낙담을 드러냅니다. 개인적인 영혼의 실제상황을 말합니다. 문학적 수사 없이, 정당화나 우회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빵은 빵이라 포도주는 포도주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공허한 일반론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왜? 어떻게? 언제? 우리는 영혼이 처한 상태를 더 개인적으로 부각시키는 일련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간결하게 그러나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질병의 증상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통증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며, 앞이나 뒷부분에, 이러한 주기로, 이러한 진통제로 진정된다는 등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도자를 이해시키되 상징이나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선이나 사도직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료함, 빈번,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것이며, 또한 우리의 좋은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필요성,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 등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의사, 친구, 스승이시고 항상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 앞에 있다면, 그분께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의 그림이 시간과 함께 색깔과 조명이 나타날 때까지 점차 윤곽을 그리는 '프레젠테이션'의

거짓 이미지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섞지 않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사는 병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가능한 합병증을 알고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영적 지도 역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도자가 알고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실수뿐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함께! 그분은 우리 마음에 많은 좋은 씨앗들을 심으셨으며 그것들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첫번째 영적 지도의 대화에서 우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때로는 결정적입니다). 또는 몇 달 후에 우리를 알 수도 있고, 결코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내밀함을 발견하고 단순하게 알려려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성.

진실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단순성의 덕으로, 이는 하느님을 찾는 마음에서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단순성의 덕과 반대되는 것은 말과 행동의 꾸밈, 관심을 끌려는 욕망, 지식에 대한 자랑, 자만, ... 등인데, 이것들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방해하고, 그분을

가까이서 따르는 것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돕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영혼은 내적으로 얽히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사건을 가지고 곧장 하느님께 향합니다.

우리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단순함의 덕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의 말은 분명하고 충분해야 합니다. '예'는 '예'여야 하고, '아니요'는 '아니요'여야 합니다(마태 5,37). 주님은 선한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의 가치와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서 진정성을 추구하고 위선과 이중성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항상 하느님의 반영이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복되신 호세마리아 성인이 몇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마치 공증인의 서명처럼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매우 거리가 먼 것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불안정한 사람으로, 마치 배우처럼 청중 앞에서

연기하는 역할에 따라 생각을 다르게 말합니다(야고 1,8).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시급한 것은 한마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할지라도, 가면이나 변장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거나 존경받으려 하지도 않고, 모든 위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영적 지도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모로도 구별되지만, 우리의 내적인 상태로 훨씬 더 많이 구별됩니다: 생각, 이상, 애정, 환상, 계획, 기쁨, 슬픔, 더 나아지려는 욕망, 좋은 마음을 가지려는 욕망...

내적인 상태는 질과 양에서 매우 다릅니다. 영혼은 장롱처럼 비어 있거나 가득 찬 것이 있고, 가치가 있거나 없는 것을 보관하기도 하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있으며, 새것이고 반짝이거나 낡은 것 등 모든 종류의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곳은 사람의 부 또는 가난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거리의 눈평에서는 사람이 외모로만 평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름다움이나 추함, 젊음이나 늙음이 사람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내적인 세계가 영적 지도의 고유한 영역이지만, 처음에는 그 내밀함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절한 어휘조차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드러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마 다음의 작은 일화에서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극동을 여행한 후, 방문한 나라의 인상을 한 친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 겹의 내밀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피상적이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내밀함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족, 일부 직장동료, 친구... 두 번째 층은 훨씬 더 보호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두세 사람만 접근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당사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세계는 아마 우리 스스로와 하느님만 알 것입니다. 아무도 이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 우리의 인격적인 영역이고, 영적 지도는 아마도 이 영역에서 완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는 항상 많은 신뢰를 전제로 하며 동시에 초자연적인 감각을 크게 요구합니다. 신뢰와 초자연적인 감각이 없는 대화는 다소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은 은총의 통로도 아니고 영혼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세계를 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조금씩 그 내밀함을 작은 비밀과 함께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연자이자 친구인 영적 지도자는 우리에게 관심과 격려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알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의 좋지 않은 것들을 은총의 도움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열왕기(2 열왕 5,9-14)에서 우리는 나병에 걸린 시리아 왕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나병을 고칠수 있는 힘이 있다는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어 섰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 살이 돌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러한 하느님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치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내게 와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병 부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가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목욕하면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병이 치유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긴 여행을 했지만, 예언자의 말에 신뢰와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여행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발길을 돌렸을 때,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그의 부하들이 말한 것을 숙고했고 마침내 예언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예언자가 일러준

대로 했고, 그의 삶은 어린 아이의 삶처럼 회복되었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겸손과 순종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쓸모없어 보였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내적인 자세가 엘리사의 말을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종(머리의 순종, 이해의 순종)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에게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마른' 손, 마비된, 움직이지 않는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 실천적인 믿음의 표시가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건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일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도록 허락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은총은 영적 지도의 통로를 통해 빈번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없는 것을 방금 확인한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루카 5,6-7).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은 이전에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할 줄 알았으며 복종했습니다.

빵과 물고기의 기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아냈고, 그분께서 축복하신 후에 나누어 줍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루카 5,4-11). 약 오천 명의 남자들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것을 즉,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십니다. 만약 사도들이 그들 자신의 수단으로만 행동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 명의 나병환자가 순종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루카 17,14).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성 바오로는 복음서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다른 이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난 그의 강한 성격은 새로운 소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다마스쿠스까지 인도하도록 했고,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가 그의 시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유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가는 길에서 베들레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 헤로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헤로데 땅의 현자들에게 더이상 길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교리의 확신과 성사의 은총을 마련하셨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이끌고 인도해줄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34).

영적 지도에서 순종을 통하여 얻은 열매는 가득 합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고, 완고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조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매우 작다고 느끼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한 훌륭한 작가는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고통 끝에 나는 도움의 손길을 청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 지도자는 우리를 돕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을 줄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겿세마니의 고뇌 중에 천사가 와서 위로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의 순종으로 우리를 만들고 다시 만드시도록 할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돌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도공의 집으로 내려갔을 때, 옹기장이가 물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빛던 진흙 그릇이 그의 손에서 망가졌습니다. 그는 같은 진흙으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다시 빚었습니다.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예레 18,3-6)

하느님께서 그렇게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시며 우리를 만드시도록 허락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항구성. 내적 삶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가 필요하고(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승리도 필요합니다. 낙담하지 않고 즉각적인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여러 번 새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동안, 일어서는 동안, 내적 삶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영혼은 항상 보이지 않더라도 열매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등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영적 지도를 받으러 가는 항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러한 노력에 새로운 빛과 은총으로 보상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내적인 것입니다: 게으름, 낙담... 바로 그때가 아마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 투쟁하고자 하는 영적인 대화나 고해성사를 가장 필요로 할 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매주 받는 지속적인 영적 지도는 우리의 영혼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패배와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성덕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들이 그 웅장하고 위대함을 지닌 건물을 어떻게 세웠는지 보았습니까? —벽돌 하나 그리고 또다른 하나로 수천 개를 그러나 하나 하나씩 쌓았습니다. —시멘트 자루들 하나 하나씩 그리고 전체 덩어리 앞에서 작아 보이는 석재 블록들. —그리고 철재 기둥들. —그리고 같은 시간동안 일하는 일꾼들, 날마다...

'그들이 그 웅장하고 위대함을 지닌 건물을 어떻게 세웠는지 보았습니까?... —작은 것들의 힘으로! — (길, 823). 하나의 그림은 인내심과 함께 하나하나의 붓질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와 빈번한 고해성사에 가려는 향구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의욕이 없을지라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산이 모래알로 변할 것이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각 모래알이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행되지 않은 결심처럼 빨리 낙담으로 이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민중의 지혜가 조언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평평한 땅 위를 구르는 베어링 불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찰 효과로 힘과 속도를 잃게 되지만, 조금만 밀어주면 계속 굴러갑니다. 우리도 때때로 계속 움직이기 위해 조금 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장군 노부나가는 자기보다 훨씬 더 우세한 군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와 그의 병사들은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강하게 미신적이고 운명론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의 군대는 물질적으로 짓밟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신토 신사에 가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나서 동전을 공중에 던져 승리할지 패배할지 알게 할 것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물러설 것입니다. 운명의 얼굴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동전을 공중에 던졌고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싸우려는 갈망으로 가득 찼고,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관 중 한 명이 노부나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운명의 얼굴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장군이

대답하며 부관에게 양쪽이 모두 앞면인 가짜 동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명은 용감한 사람들에게는 양쪽이 모두 앞면인 동전이고, 겁쟁이들에게는 양쪽이 모두 뒷면인 동전입니다. 패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전투나 삶에 나가는 사람은 확실히 패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건설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조만간 그것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분은 중립적이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승리의 확실성은 하느님의 은총에 있습니다. 은총은 '막대기를 사용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거나 약간의 진흙으로 눈먼 이에게 시력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빈번하게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격려하여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조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III. 영적 지도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대화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아닙니다. 고정된 도식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 지도는 생명으로 가득 찬 대화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부터 또는 가장 큰 걱정거리나 당일의 가장 우선적인 것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근본적인 내적인 태도, 특히 그 시점의 두드러진 투쟁을 알려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난번의 결심과 제안들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무엇을 더 많이 투쟁했는지, 사도적 계획들... 이렇게 한 대화에서 다른 대화로 연속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등 마지막 대화의 실마리를 다시 잡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말하면 나머지는 쉬워지고, 마지막으로 남겨두면 결국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열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제가 무엇을 말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양심을 가지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선 그대가 알려지기 원치 않는 것을 먼저 말하십시오.” (밭고랑, 327)

당연히 중요성 때문에 더 자주 이야기할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공부, 순결, 일, 소명, 사도직, 가족...

이어서 이러한 대화의 몇 가지 기본 주제들이 제안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적 지도의 내용은 살아있는 무엇인가고, 삶만큼이나 광범위합니다.

기도 생활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원인으로 삼아 기도와 희생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전체가 주님을 위한 시간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그분께 나아가 일과 삶을 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양식을 찾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멈춤" 없이는 하루의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생명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과 비율로 영양분을 필요로 하듯이, 영적 생활도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러한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영적 지도자는 우리에게 간단한 영적인 실천들로 구성된 생활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 또는 매우 적은 수: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조배, 영적독서 시간...). 이러한 것들은 하루나 일주일에 걸쳐 시간을 배분합니다. 아울러 기도는 더 강렬하고 개인적인 하느님과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은총이 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미사성제, 삼종기도, 고해성사, 관상기도, 화살기도, 양심성찰 등은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실천을 통하여 마침내 기도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하루는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에서 영혼은 하루를 하느님께 흠족한 제물로 바치는데 필요한 힘을 찾습니다. 사도들처럼 이러한 신심의 실천들은 일상 안에서 단순하게 하느님과 함께 하는 관계를 가지며,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 공부, 일의 중심에 함께 계십니다... 평범한 일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이러한 신심의 실천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합니다. 눈으로 덮여 길을 잃은 산속에서 길을 표시하는 빨간색 표지판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적 생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봄여름도 있지만 겨울도 있습니다. 햇빛 없는 날도

있고 달빛이 없는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우정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기심과 게으름이 생겨나고 결국 사랑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릴 때에도 몇몇 신심 행위를 확고히 하는 것은, 언제나 길을 뚜렷하게 표시해 주는 붉은 표지판처럼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151).

신심 규범

우리의 삶은 생활계획을 구성하는 이러한 신심 규범들로 풍요로워집니다. 내적인 생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수년 간 응답을 받은 사람의 것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러한 실천들이 "엄격한 규범으로, 방수 구획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심의 실천은 "유연한 일정표"를 가집니다. "한가한 사람, 직업적으로 바쁜 일과"를 가진 사람, 그리고 소홀해서는 안 될 가족의 의무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동료 등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 맞추어집니다. 신심의 규범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완벽하게 맞는 고무장갑과 같습니다". 너무 긴 장갑이 불편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너무 짧은 장갑도 그렇습니다. 생활 규범은 공부나 직업적으로 바쁜 일과와 휴식, 질병과 신체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맞춥니다.

이러한 규범들은 경직되지 않게 매일 실천하는 의무들의 중요성에서 첫 번째 자리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의 관계안에서 하루의 성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기쁨, 사도직의 효율성... 상당 부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지도에서 생활계획과 관련하여 이러한 규범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신심, 각 개인에게 쏟는 사랑과 노력..., 그것들을 실행하는데 존재하는 어려움의 극복, 영혼이 점차 하느님의 현존안에서 머무는 습관, 기억, 보조 도구 등.

기도하는 방식과 한 주간에 주님과 대화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산만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무슨 결심을 했는지; 기도가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는지.

신앙

신앙은 모든 삶 안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가족, 공부, 일, 친구관계..., 크고 작은 결정들을 알려야 합니다; 신앙은 동시에 일상의 일반적인 의무들과 마주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은 좋은 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살고, 실천하고,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실이자 동시에 표현인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삶 즉, 매일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신앙의 시작으로 믿는 것에 따라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덕이 일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영적 지도의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모순의 수용을 어떻게 개입하는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낙관적인 시각을 어떻게 여기는지; 공부, 직장 동료들과 관계, 타인을 위한 선행 등, 그들을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가기 위하여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영적 지도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가장 즐겁지 않은 사건과 사실조차 하느님의 섭리이고 계획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정화와 내적 성장의 수단으로

희생이 십자가의 축복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순들을 봉헌하고, 불평을 피하고, 슬프고 부정적인 언어를 피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성화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청원기도, 수호 천사들과 관계안에서, 어려운 상황 등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에 의지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

덕을 이야기할 때 교리 주제들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주위 환경 때문에 지배되는 교리적인 혼란이 많습니다: 공부, 독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상담, 대학, 중등교육의 마지막 학년에서 종파적이고 신앙에 반대되는 책들이 자주 권장되므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적절한 설명과 치료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결

순결은 내적 생활의 입문입니다. 우리는 이 덕에 대해 섬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령의 활동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현재의 환경과 왜곡된 기준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양심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첫 번째 덕은 아니지만, 깊이 있는 내적, 사도적 생활의 입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또는 여러 번의 심도 있는 대화에서, 우리가 이 덕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의 큰 과제는 섬세한 양심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적 세심함을 양심의 가책과 혼동하지 않고, 각자의 삶이 전개되는 환경에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다면, 항상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마음과 감정의 보호; 극기와 상상력의 통제; 독서의 신중함, 구경거리, 이성과의 관계, 부적절한 친밀함 등을 처음부터 조심하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신속히 의지하면서...

이러한 덕을 자연스럽게 평가절하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예술, 문화, 기타 여러가지 형태의 표현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들의 정면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대항하여 우리는 명확성과 교리의 확고함으로 맞서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강한 외부 압력 때문에 스스로를 무질서한 정욕으로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고 확고하게
대항하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사도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소명

영적 지도의 본질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을
재확인하는 것(또는 찾는 것)입니다. 소명은 귀중한
진주이며, 각자가 이미 발견했거나 아직 발견해야 할
숨겨진 보물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총이며 특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독특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기를 원하셨고, 세례를 통해
친밀하게 그분의 생명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각 개인에게 고유한 사명을 지정하셨고
사랑으로 하늘나라에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긴
여행 후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듯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소명은 항상 커다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일, 공부, 사람, 사건... 우리를 곧바로 하늘로
향하게 하는 하느님의 특별한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뜻이라는 약한 촛불로 매 발걸음마다 넘어질 위험을 안고 걸을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에게 빛을 제공하며, 또한 삶의 모든 우발적인 상황에서 강해지기 위한 필요한 은총도 제공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항상 희망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영적 지도의 빛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찾고 있을 때... 그리고 수년간 그 길을 걸은 뒤에도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만남

고통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고통 없이는 덕도, 사도직의 열매도, 주님과 친밀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과 친밀함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편함과 고통의 수반을 거부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우리 주위에 만연한 쾌락주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극기의 본질, 긍정적인 성격, 우정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진정한 기쁨, 구속 신비 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희생을 어둡고 슬픈 시대의 것으로 보려는 주변의 환경적인 압력은 모두에게 특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정신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치의 표현임을 특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재화, 인간관계,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래 선하지만, 원죄로 인한 무질서 때문에 영혼을 포로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희생이나 우리가 찾지 않아도 다가오는 희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원하셨던 하느님과 일치될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준비하려는 갈망입니다. 그것은 단지 절제와 감각 그리고 그것들이 불리일으키는 불균형과 과도함을 견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포기이며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일치이고 영혼에 초자연적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공간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전조입니다. (로마 8,18).

내적인 극기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상력과 기억의 통제를, 하느님의 현존을 방해하여 무엇인가 유혹을 느끼게 하는 쓸모없는 생각과 기억을 멀리합니다.

영적대화는 우리의 내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이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적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극기들을 구체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랑

내적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즉시 드러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동시에 그분께 이끄는 길이며, 하느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내적생활의 상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생활의 척도입니다. 영적생활에 있어서 확실한 성장의 표시입니다.

사랑에는 많은 실천적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형제자매, 친척, 친구, 직장동료, 이웃,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께 이끄는 길을 쉽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정, 친절, 삶과 사물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 잘 수행된 일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심, 긍정적인 대화, 형제애적 권고와 실천, 시간과 재화에 대한 관대함, 더 자주 주위 사람들의 영적, 인간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진정한 행위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지도에서 사랑의 덕과 이러한 덕의 특별한 표현인 사도직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상태를 꽤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기도생활이 사랑과 사도직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완전히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기도는 자신만의 완성을 찾고 있을 것이며, 조만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내적성장은 즉시 많은 사람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는 큰 갈망으로 변화됩니다.

영적 지도에서 대화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천적인 방식으로 친구, 일, 동료, 친척, 지인들과 사도직을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기쁨과 걱정

“기쁨, 슬픔, 성공과 실패, 위대한 야망, 일상적인 걱정거리들, 심지어 그대의 나약함에 대해서도!”(길 91). 이것들은 성 호세마리아가 기도에서 주님과 대화 가능한 소재로 지적한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자주 영적대화의 첫 번째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또 다른 것들이 시작됩니다.

걱정과 기쁨은 우리가 실제 머리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사실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는 기쁨과 미소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 존재의 토대로서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느끼고 추구하도록 지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가족과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영적 지도는 영혼을 환기시키고, 평화와 기쁨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이 스스로 생겨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프고 비관적인 기분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일치된 고통의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청하고 긍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걱정 근심을 모두 털어놓을 때, 훨씬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성에 대한 주님의 상급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내적생활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현실을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좋은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큰 사랑은 그분의 신비체에 대한 큰 사랑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그 결과로서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김이 없이 바라봅니다. 좋은 자녀는 교회를 쇠퇴한 인간 사회처럼 다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교회 안에 담긴 깊은 신비를 잊지 않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교황, 주교, 사제, 수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무관심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더 모범적이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류와 결함을 본다면, 그들의 다른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중하고 친절하게 긍정적인 형제애적 권고를 통해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안에서 일부 구성원들의 오류와 약점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한 신학적 토대를 가진 교회와 교황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영적 지도 시작부터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와 희생을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묵주기도 한 단, 공부, 일, 고통, 역경, 미사지향 등을 통한 봉헌... 좋은 자녀의 사랑을 항상 마음안에 두는 방식으로.

성덕에 대한 열망과 미지근함.

영적 지도에서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꾸준히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는 기록해지기를 원하는가?", "주님과 친밀한 우정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공부, 직업, 가족적인 의무들을 통해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가?" 영적 지도를 통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성덕에 대한 열망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모든 영적 지도의 나침반이 되려면, 미지근함의 첫 증상들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혼의 병은 성덕에 대한 열망을 없애고 눈길을 지상의 야망과 보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따라서 지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혼의 병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슬프고 궁핍한 내면으로 몰아 사도적 힘을 없애는 병입니다. 은총에 대한 빈번한 무응답과 태만 때문에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약하면 지성은 삶의 지평에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기를 멈춥니다. 또한 태만 때문에 구체적인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미지근한 사람의 내적생활은 깊은 변화를 겪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찾아오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제 신심에 대한 실천은 내용과 영혼이 없고 사랑도 없어집니다. 일상적으로 효능감이 없고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쟁정신은 나약함을 느낍니다. 노력에 대한 무력감을 명백히 확인하면서 절망감을 받아들입니다. 불쾌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가벼운 죄를 허용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느님의 일, 게으른 생각, 약한 의지와 행동 등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투쟁도 점차 결여됩니다.

내적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산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는 등산가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등반의 한 순간에 넓고 쾌적한 길을 버리고, 작고 좁은, 가파르고 험준하지만 항상 접근 가능한 길을 따라야 합니다. 넓은 길은 미지근한 사람의 길이며 벼랑으로 이어집니다. 등반에서 우리를 동행하는 안내자는 우리의 느슨함을 즉시 알아차릴 것이며, 하느님께로 이끄는 좋은 길을 다시 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공부와 일

공부와 일은 내적생활 및 일치된 삶의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적생활과 사도직이 관련되는 한 그것은 영적지도의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지 또는 멀어지게 하는지, 어떻게 성화하는지; 같은 일에서 협력하는 사람과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지; 그것에 수반되는 윤리적 의무를 모범적, 영웅적으로 수행하는지; 일이나 공부를 통해 점점 더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는지 여부입니다.

논리적으로 일의 대상이나 직업적인 결정 자체는 영적 지도의 소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내적생활, 가족의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빛과 조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조언은 신중해야 할 것이며, 도덕적 측면 즉, 자신의 성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명백히 끼치는 것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IV. 영적 지도와 잦은 고해성사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태 9,2). 예수님께서서는 치유보다 모든 죄에서 깨끗해져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더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통회하는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이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 "다시 시작하여라..., 덕을 키우려는 노력과 결점을 없애려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라."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한 원망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희망에 찬 자세를 취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며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이 자비의 성사는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잘못이 바로잡힙니다. 고해성사는 단지 빛을 탕감 받는 심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고해성사는 결심과 미래를 향한 방향설정을 의미하며, 바로 영적 지도의 통로가 됩니다.

더욱이 그것은 영적 지도의 정점이자 완성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합니다.

성사적 사명과 함께 사제는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있게 알고 도움을 주는 개인적인 사목활동을 수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성사의 은총을 받기위해 우리의 내밀함을 여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허락해주시요. 어떤 순간에 별이 사라져 빛을 잃는다면, 항상 선한 목자에게 의지하십시오. 작은 일이나마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두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선한 목자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어떤 잘못으로 -비록 중대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책망한다면, 의심이 든다면, 고해성사에 가십시오. 여러분을 돌보는 사제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과 영혼의 섬세함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강인함을 요구할 줄 아는 사제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모든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볼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선한 목자에게 갈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가 시선을 들어올려 높은 곳에서 주님의 별을 다시 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34).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영적 지도와 훌륭한 고해성사가 결합될 때 내적 생활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잘 아는 사제에게 습관적으로 고해성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은 빛과 힘을 받습니다. 고백에 대한 두려움과 유혹을 피하며 내적 섬세함을 키우고, 일상적인 투쟁을 위한 특별한 은총을 받습니다. 조연도 더 정확하게 받을 것입니다.

내적투쟁을 시작하는 우리의 새로운 용기는 고해성사의 성사적 은총으로 강화됩니다. 주님께서 영적 지도를 통하여 주시는 도움은 깨끗한 마음과 함께 더 많은 메아리를 칠 것입니다. "그릇을 채우려면, 성성 아우구스티노는 가르칩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선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악을 버리십시오" 성인은 권고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꿀로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식초로 가득 차 있으면, 어디에다 꿀을 채우겠습니까? 수고가 필요하지만, 먼저 그릇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스터턴에게 왜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죄를 사라지게 하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고하고 구체적인 결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선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더 심각하게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에(모든 것은 은총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항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우리를 미지근함에 빠뜨리는 그런 불충실함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적절한 빈도로 고해성사에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섬세함이고 하느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징표입니다. 반대로 고해성사를 경멸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영혼의 세밀함이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어느정도 고의적으로 지은 소죄에 대항하여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며 가장 확고한 결심이어야 합니다. 잦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소죄를 더이상 짓지 않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잘못과 불충실함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잦은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열매를 축적하는 온도계가 될 것입니다.

고해성사의 빈도는 우리 영혼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고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기로 진지하게 결심했을 때, 보통 매주 또는 격주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다.

"8일마다 신심 깊고 겸손하게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비록 양심이 어떤 대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고해성사에서 당신은 고백하는 소죄의 사함뿐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큰 힘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큰 빛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풍성한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겸손, 순명, 단순함, 사랑의 덕을 실천할 것이며, 이 고해성사라는 단 하나의 행위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덕을 실천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고해성사가 단지 회개의 성사만이 아니라, 영적 생활의 성장과 발전의 성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양심이 섬세하다면, 한 고해성사와 다른 고해성사 사이의 간격을 더 벌리는 것도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실수나 어떤 타락이 있었다면, 즉시 그날 생명의 성사에 가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 성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적절한 빈도로 다가가는데 큰 빛을 주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대화 후에, 우리는 하느님과 자신의 일을 지도자와 함께 다룰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서 받은 조언을 온 마음과 정신에 잘 새길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더 명확해지고 투쟁의 지점들이 더 구체적으로 된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